

學會活動을 回顧하며



李 東 昊

(大韓電氣學會 會長)

친애하는 會員 여러분!

지난 2년간 여러모로 보살피 주시고 鑿鑿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感謝드리며, 밝아오는 乙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항상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會員 여러분의 學會發展을 위한 적극적인 協助로 本人이 1993-1994年度 大韓電氣學會 會長의 責務를 大過없이 마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때 급변하는 世界政勢의 흐름속에서 無限競爭의 시대에 勝者로 살아남기 위한 凡國家的 要望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學會는 여러분에게 걸쳐 다양한 노력을 해온 한 해 였다고 봅니다.

國家의 技術競爭力 強化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眞摯하게 기울여 온 결과 產學協同 체제가 더욱 긴밀해 졌으며 學術活動 분야에도 刮目할 만한 活性化가 이루어지는 등 學會의 內實化를 착실하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얻은 것은 會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기인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2년전 本人은 學會長으로 立候補하면서 여러 회원들께 몇가지의 약속을 드린바 있으며 2년전 많은 업적을 남기신 前任 黃煥文 會長의 뒤를 이어 제23대 會長으로 취임한 이후 이들의 履行을 위하여 나름대로 最善을 다해왔습니다.

첫째로, 學會長의 任期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有能하신 會員들의 學會 參與 機會를 확대하였으며 學會長으로서의 職務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次期會長으로서 1년간을 執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고, 改正된 學會 定款에 의하여 새롭게 구성된 任期1年制의 1995년도 會長團을 비롯한 學會 執行部가 금년도 總會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日本電氣學會와 보다 실질적인 技術協力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技術협력에 관한 交流協定을 補充하여 지난 3월 체결하였고, 1994년 7월에는 日本電氣學會가 주관한 國際심포지움에 中國, 홍콩 電氣學會와 함께 참석하여 "GLOBAL CONIRIBUTION"에 관한 共同宣言(동경선언)을 採擇하였고 이 宣言文에 의거 제1회 國際 심포지움을 1995년 7월 夏季學術會議 기간 중 大田에서 개최기로 합의되어 이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中國의 電氣學會와도 학술 및 技術협력에 관한 交流協定을 中國電機工程學會 創立60周年 紀念 學術大會行事에 참석하고 中國 北京에서 1994년 10월 23일에 체결하여 相互交流를 定例化하는 등 學會의 國際化 및 世界化 位相의 提高에 커다란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세째로, 學會의 계획한 諸般事業計劃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學術活動事業의 源泉이 되는 든든한 財務確保를 위하여 後援機關의 支援金 확보, 廣告 收入增大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剩餘金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學會의 활성화를 위한 基金으로 필요시 艱요하게 運用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우리 電氣學會의 宿願이던 學會事務室의 擴張을 위하여 신축중인 科總 新館建物인 “科學技術振興센터”에 90坪을 賃貸하기 위한 계약을 1994년 8월 締結하였고, 1995년 6월말에는 入住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째로, 우리 學會가 電氣界 Think Tank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기 위하여는 활발한 學術活動이 필수적임을 절감하여 會員의 論文發表機會를 擴大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摸索해 온 결과 限定된 예산 때문에 묶여있던 論文誌의 월간 掲載論文 편수를 2년전 13편에서 20편까지 劃期的으로 增編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취임 첫째인 '93년도의 江原道 속초시 설악 프라자 리조트에서 개최된 夏季學術大會에는 최초로 400편대의 발표편수와 1,000여명의 회원참가, 200여명의 동반가족이 참관하였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 조선포텔과 콩코드호텔에서 열린 '94년도 夏季學術大會에는 學會 사상 유례없는 최대, 최고 규모인 550여편의 研究論文發表와 參加會員 1,200여명, 동반가족 500여명 합계 1,700여명이란 많은 회원이 참석하였고 特히 產業體에서 깊은 관심과 협력과 참여속에 160여편이란 많은 기술개발성과들을 발표, 참가해 주심으로써 產,學,研이 함께하는 대회의 場이요 交流의 場인 명실공히 產學協同의 學術大祝祭로 성장 발전되어 튼튼한 產學協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本 學會 學術委員會와 事務局의 짜임새 있는 計劃과 準備를 위한 勞苦가 있었으며, 特別會員社의 物心兩面の 協助가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며 이 紙面을 빌어 그 勞苦와 協助에 대하여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特히 이러한 成果의 바탕에는 우리 電氣學會의 產,學,研의 會員 여러분이 다 함께 참여하는 學術活動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은 理解와 높은 認識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점 本人이 가장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도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관련 規定들을 재정비하였으며 필요한 분야의 研究會를 적극 支援하는 등 學會의 內實化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의 結實은 學會의 任職員을 비롯하여 會員 여러분들이 渾然一體가 되어 부단한 협조와 指導鞭撻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忠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努力을 통하여 우리 電氣學會가 보다 앞서가는 發展된 모습을 보이게 된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部門別로 未洽한 分野는 後任 會長團 및 任員陣들을 主軸으로 모든 회원들께서 더욱 더 분발하셔서 改善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동안 學會事業에 盡力하여 주신 任員, 각 委員會 委員 및 財政增大에 크게 협력해 주신 特別會員業體의 協助에 거듭 謝意를 표하는 바이며 지난 2년간 學會 業務에 熱과 誠을 다하여 수고해준 事務局의 勞苦를 치하하고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電氣學會가 產,學,研이 함께하는 더욱 發展되고 우리나라의 技術產業革新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끔 會員 여러분의 倍前의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韓松暉 新任 會長을 비롯하여 任職員 여러분과 會員 여러분의 健闘를 바라며, 다시 한번 本人이 在任하는 동안 베풀어 주신 協力에 감사드리고 大韓電氣學會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1994년 歲暮